

내 삶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15일 자정으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선거전으로 펼쳐진 13일 간의 열띤 레이스에선 각 정당의 선거운동원들의 맹활약이 돋보였다. 각 정당의 상징 색깔처럼 정치적 신념은 다르지만, 선거운동원들은 유세 기간 동안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목청을 높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21대 총선

‘코로나 19’에 슬기롭게 대처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바꾸게 될 4·15 총선이 15일 전국에서 치러진다. 특히 여·야 각당이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을 내걸고 맞붙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이 대격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관련기사 2·3·4·5·6·22면〉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총선 투표율 자체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치러지는 광주·전남지역 총선에서는 ‘뒷발 탈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인물론’을 앞세운 민생당, 무소속 후보들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유권자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호남의 미래 위한 투표 ... 뜨거운 표심에 정치지형 격변 예고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19 예방준칙 지켜야

광주 8석·전남 10석

민주당, 전체 석권 목표

민생당, 2~3석 지키기

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제21대 총선 선거인수는 광주 120만 7972명, 전남 159만1919명이다. 또 전국적으로 총 4399만4247명의 유권자가 투

생애 첫 총선 ... 투표 새내기들 ▶6면
KIA 뒷문지기 노리는 고영창 ▶20면

표에 참여한다.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이 강한 이번 총선에는 여야 각당의 대권 잠룡들이 직접 출마하거나 후보에서 총선을 지휘하면서 몸값을 높이고 있어 총선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국난 극복’과 ‘국민 안전’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했고,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과 ‘조국 사태’ 등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결집에 공을 들였다.

광주·전남지역 18곳 선거구에서는 지난 20대 총선 참패를 설욕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현역 국회의원을 앞세운 민생당이 격돌했으며, 미래통합당과 정의당·민생당·무소속 후보 등도 표밭을 갈았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문제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민생당은 수년 동안 쌓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직력이 이 지역의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렸다고 판단, 총력을 기울였다.

광주 8석, 전남 10석 중 민주당은 18석 전체 석권을 목표로 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갔고, 민생당도 2~3석 승리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가운데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만이

남은 상황이다.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혐오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15일 선거일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26.69%였고, 전국적으로 전남(35.77%)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32.18%)도 4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호남 전체가 전국 평균(26.69%)을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12.2%, 최종 투표율은 58.0%였다. 따라서 이번 투표율이 60%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유권자들의 발길이 분산된 측면이 있어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소독, 임시기표소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으니, 마스크 착용 후 꼭 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일 초·중·고 2차 온라인 개학

접속 장애 잇따라 원격수업 우려 목소리

고3·중3에 이어 16일 중1·2와 고1·2, 초·등 4~6학년까지 사실상 전면 온라인 개학이 예정된 가운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접속 장애가 잇따르면서 원격수업이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대상 EBS온라인클래스가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약 1시간 정도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e학습터도 로그인 오류가 발생해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에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원격수업을 앞두고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EBS온라인클래스 접속이 지연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은 앞으로 문제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16일 2차 온라인 개학을 하는 학생 수가 초·중·고 3학년 86만명까지 합하면 400만여 명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된다. 학부모 A씨는 “접속이 안 돼 교사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도 안 된다면서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제대로 된 수업이 되겠느냐”고 걱정했다.

교육부는 2차 개학일 전까지 시스템 개선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학습터는 15일까지 7개 지역별 서버를 12개로 확충하는 한편 비상 상황을 대비한 서버도 준비한다. 접속 오류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콜센터 인력 100명도 16일부터 투입하기로 했다. EBS온라인클래스도 로그인 방식을 바꿔 접속 지연에 대비하고 추가 저장장치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교육계는 원격수업 사고 방지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막바지 비자리를 쏟고 있다. 대다수 학교에서 실전같은 모의수업이 이뤄졌고, 1차 온라인 개학 당시 노출된 학습플랫폼 불안정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보완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지난주 중3, 고3 개학 경험을 살려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행 학생과 교사들이 불편함 없이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